

한국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급가속, 통신 기저효과와 실질압력 혼재

2026.09.02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8월 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과 근원, 생활물가가 모두 전년동월비 기준 가속했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판단에 쓰는 근원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 2.6%→3.4%, 한국식 2.5%→3.1%로 두 정의 모두 큰 폭 올라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3.00%, 7월 만장일치 인상·인상 기조 지속 선언)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인됐다.

2026년 8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가속, 한국은행 인상 기조에 힘 실는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1%로 7월 2.8%에서 올라섰고, 근원물가 두 지수와 생활물가(2.5%→3.2%)까지 일제히 가속하며 표면 숫자와 기조 판단축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했다. 지난 7월 발표에서는 헤드라인이 둔화하는 동안 근원만 소폭(+0.1p) 오르는 괴리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그 괴리가 봉합되면서 오히려 근원 가속폭이 0.6~0.8%포인트로 커졌다. 물가가 시장의 주된 우려 축인 현 국면에서 이는 분명한 물가 측 악재이며, 방향성만 보면 한국은행의 인상 기조에 추가 근거를 더해주는 결과다.

다만 이번 가속의 상당 부분은 실체가 있는 새로운 압력이라기보다 작년 8월 통신요금 지수가 한 달 만에 13.3% 급락했던 기저효과에서 나왔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이 통신 항목 하나의 전년비 되돌림만으로 헤드라인·근원 가속폭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물가의 월간 흐름을 보면 OECD 방식 근원물가의 전월비 상승률은 0.4%에서 0.2%로 오히려 둔화했다. 반면 개인서비스(외식 제외) 물가는 전년비 4.0%·전월비 0.5% 상승으로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실제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 이번 수치는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와 '실제 물가압력 확대'가 뒤섞인 결과로 판단된다.

정책적으로는 이번 지표가 한국은행의 인상 기조를 뒤집을 근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상 가속을 정당화할 만큼 단월 모멘텀이 강한 것도 아니다. 관건은 9~10월, 통신요금 기저효과가 소멸된 이후에도 근원물가가 3%대를 유지하는지 여부다. 이때도 근원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개인서비스 중심의 실질적 물가압력 확대로 해석되며 추가 인상 논거가 힘을 받겠지만, 근원이 7월 수준(2.5~2.6%) 부근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번 가속은 통신 기저효과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02 (이번)	8 월 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과 근원 두 지표 모두 전년동월 대비 상승폭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이어가고 있는 금리 인상 기조를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왔다.
2026-08-04	7 월 소비자물가는 겉으로는 누그러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단단해졌다.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로 6 월(3.2%)보다 0.4%포인트 낮아졌고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2.5%로 6 월(3.4%)보다 크게 둔화됐다. 그런데 정작 통화정책 판단의 축이 되는 근원물가는 두 가지 산출 방식 모두에서 오히려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
2026-07-02	전년동월비 3.2% 상승은 작년 저수준 베이스에서의 수학적 상승이며, 월간 물가(MoM 0.1%)는 역대 약수준으로 약화했고 근원물가(Core 2.5%)도 동결 상태—표면 숫자와 실제 압력의 괴리가 뚜렷함.
2026-06-02	전년동월비 3.1%로 0.5%p 가파른 상승이나, 근원물가(2.5%)의 온건성·교통의 극단적 기저효과(11.6%)·공업제품의 느린 수입물가 전가를 종합하면 구조적 임금-물가 악순환보다는 일회성 기저효과+환율 충격의 혼합으로 읽혀, 한은의 현 기조 유지(인하 미루기) 신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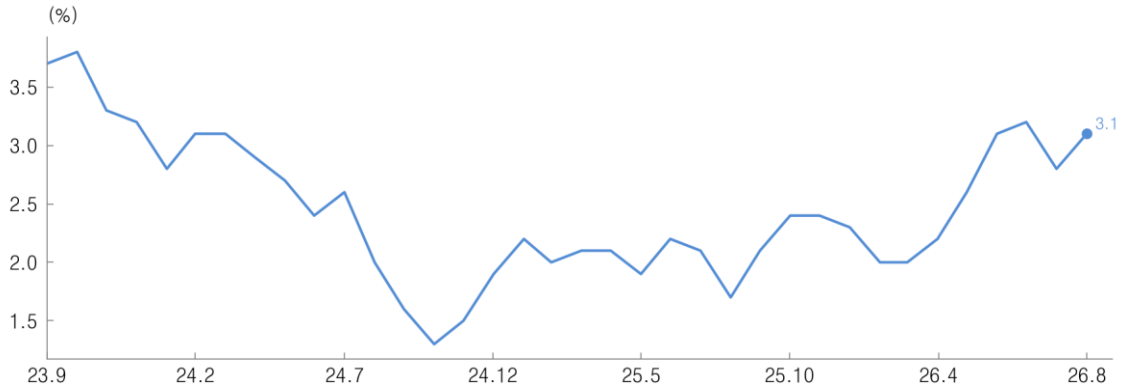
8 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급가속과 기저효과와 두 얼굴

지표	7 월	8 월	변화	맥락
총지수 (전년동월비)	2.8%	3.1%	+0.3%p	헤드라인 가속, 통신 기저효과 상당폭 반영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OECD 근원, 전년동월비)	2.6%	3.4%	+0.8%p	한은 판단지표, 두 근원지수 중 가속폭 최대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한국식 근원, 전년동월비)	2.5%	3.1%	+0.6%p	한국식 근원도 동반 가속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비)	2.5%	3.2%	+0.7%p	체감물가도 함께 가속
OECD 근원물가 (전월비)	0.4%	0.2%	-0.2%p	전년비 가속과 반대로 월간 모멘텀은 둔화
한국식 근원물가 (전월비)	0.1%	0.2%	+0.1%p	월간 모멘텀은 소폭 확대
통신 (전년동월비, 8 월)	-	16.6%	기여도 +0.63%p	작년 8 월 13.3% 급락 기저효과로 급등
개인서비스·외식제외 (8 월)	-	전년비 4.0% · 전월비 0.5%	기저효과 무관	기저효과와 무관한 실질 상승압력 확인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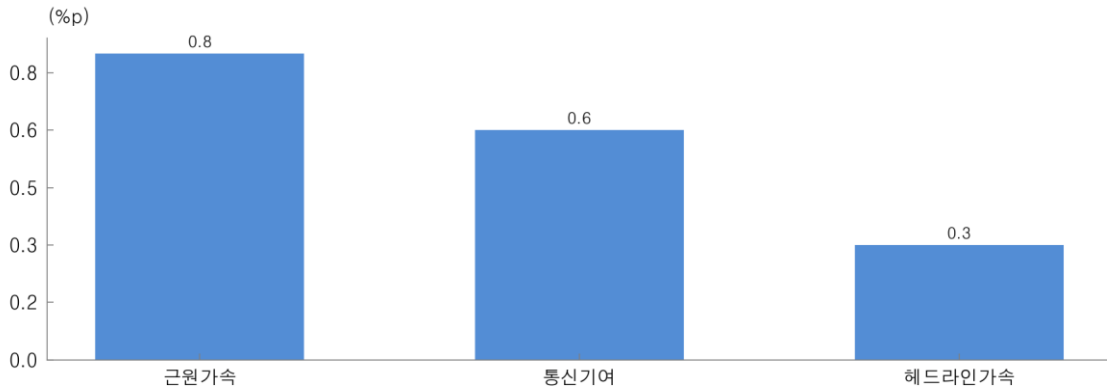
지표	값
CPI 전월대비(%)	0.2
CPI 전년대비(%)	3.1
근원 CPI 전년대비(%)	3.4
생활물가 전년대비(%)	3.2

한국 CPI 상승률(전년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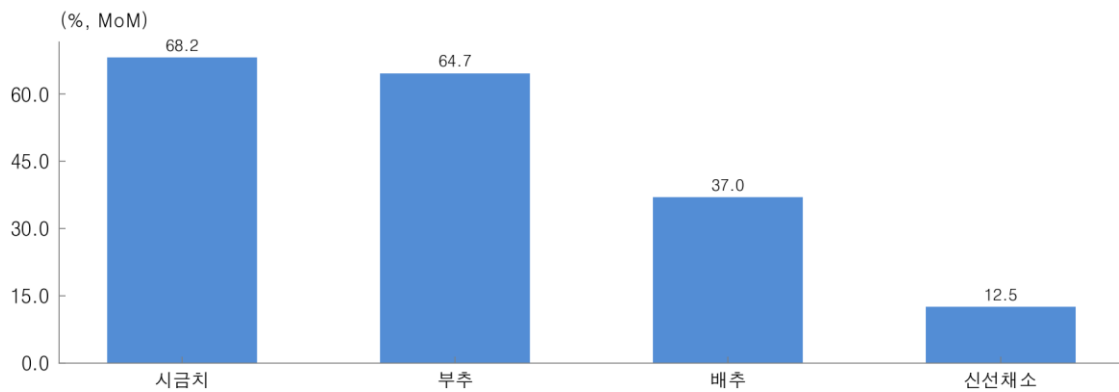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8월 CPI 가속(%p) 중 통신 기저효과 기여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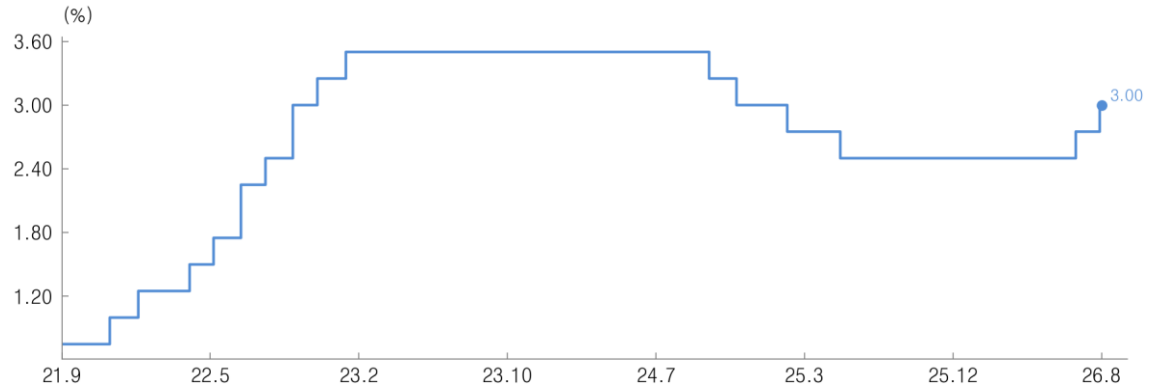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8월 채소류 급등폭(전월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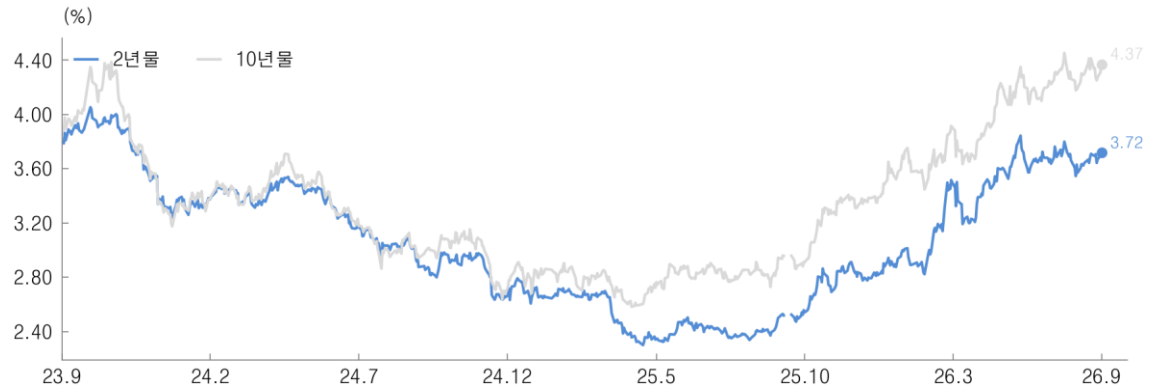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기준금리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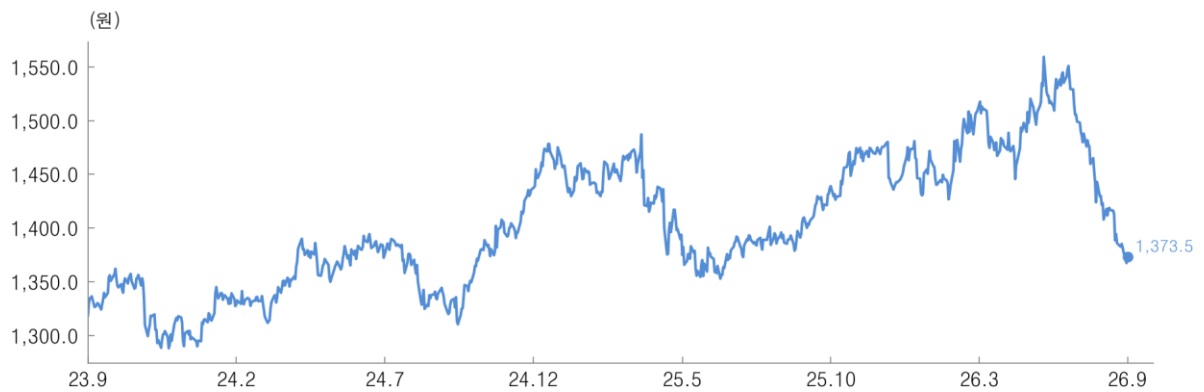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원/달러 환율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